

일본의 '12년 4분기(10~12월) 실질GDP 3기 연속 마이너스

-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12년 4분기(10~12월)의 실질GDP는 전기 대비 0.1% 감소, 연율은 0.4% 감소
- 전기 대비 마이너스 폭은 축소되어, '13년 1분기(1~3월) 이후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3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12년 4분기(10~12월) 실질GDP는 3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일본 내각부가 2월 1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2년 4분기(10~12월) 실질GDP(속보치)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고, 연율 환산으로는 0.4% 감소
- 원인은 해외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및 설비 투자의 부진으로 3기(4~6월, 7~9월, 10~12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그러나 개인소비와 공공투자의 호조로 '12년 4분기(10~12월)의 감소폭은 전기($\Delta 1.0\%$, 연율 환산 $\Delta 3.8\%$) 대비 축소

<일본의 실질GDP 변동율(전기 대비)>

[단위: %]

	2011.10~12	2012.1~3	2012.4~6	2012.7~9	2012.10~12
GDP	0.2	1.5	-0.2	-1.0	-0.1
개인소비	0.5	1.2	0.0	-0.5	0.4
주택투자	-0.9	-1.7	2.2	1.6	3.5
설비투자	8.6	-2.6	0.2	-3.6	-2.6
정부소비	0.3	1.5	0.4	0.4	0.6
공공투자	-3.0	8.4	6.1	2.5	1.5
수출	-3.1	3.4	0.0	-5.1	-3.7
수입	1.7	2.1	1.7	-0.5	-2.3

자료 : 내각부 '2012년 4분기(10~12월) GDP 속보'(2013.2.14)

- 마이너스성장 원인은 외수(수출) 부진으로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감소시켰으나, 내수는 개인소비의 견인으로 0.1포인트 증가
- 주요항목을 보면 흑한으로 의류품과 난방기구 판매가 증가하여 개인 소비는 0.4% 상승하였지만, 에코카 보조금이 종료됨으로써 자동차와 TV 판매는 침체
- 3.11 대지진 부흥수요로 민간주택투자는 3.5% 증가하였고, 공공투자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하여 4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
- 수출은 자동차, 산업기계, 철강제품 등이 3.7% 감소하여 2기 연속 마이너스, 기업의 설비투자도 2.6% 감소하여 4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 향후 일본 경기전망

- 일본의 실질GDP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지만 '12년 4분기(10~12월)에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어, '13년 1분기(1~3월)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아마리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은 향후 전망에 대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나 긴급경제대책에 의한 정책효과, 그리고 세계경제의 회복이 기대됨으로써 일본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 기대
- 그리고 “정부는 일본경제재생을 위해 담대한 금융정책, 적절한 재정 정책, 민간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 등으로 디플레이션을 해소시키고 고용창출과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회복을 목표로 노력하겠다” 고 언급

○ 시장 관계기관의 전망 :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12년 4분기(10~12월) GDP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였기 때문에 불황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과 엔저 진행으로 '13년 여름 이후 추경예산의 효과와 소비세증세 직전의 소비 수요에 의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UBS은행)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 조정 의도에 따라 엔 매각 우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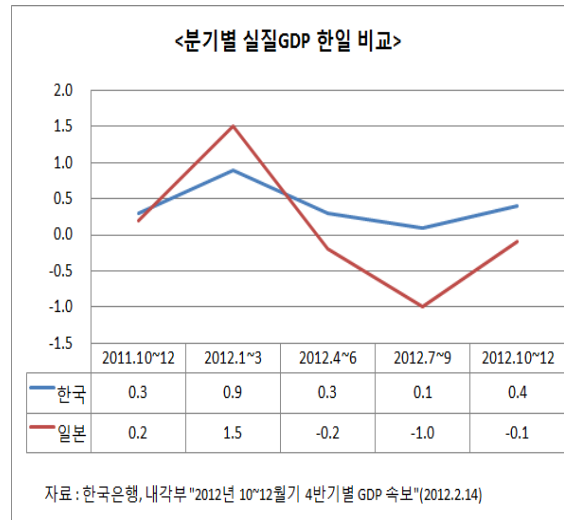
(RBS증권) 아베노믹스 정책에 의한 경기회복 기대와 소비 마인드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계속되면 단·중기채권의 수익률 상승은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절상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은 2월 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에서 1월에 설정한 2% 물가안정목표나 '14년부터 도입 예정인 '무기한 금융완화의 효과' 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에는 추가완화 보류를 결정

□ 시사점

- 엔저와 주가 상승이 수출이나 설비투자 개선효과로 나타나 '13년 1분기(1~3월) 이후 일본의 실질GDP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엔저는 디플레이션 해소에 기여하겠지만 低성장 지속과 공적 채무 증대라는 과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대두

- 정책 효과에 의한 경기회복이 전망되지만 정책에 의존한 호경기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
- 우리나라의 '12년 4분기(10~12월) 실질GDP는 전기 대비 0.3% 증가하여 '09년 1분기(1~3월) 이후 16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
- 세계 경기의 회복과 신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로 '13년 상반기는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다만,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향후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어 향후 경기는 불투명감이 증대



* 한국의 실질GDP 추이 : ('09) 0.3%, ('10) 6.3%, ('11) 3.6%, ('12) 2.0%

〈참고 자료〉

내각부, 「2012년 10~12월기 4분기별 GDP 속보」(2013.2.14.)

닛케이신문(2013.2.14/15)